

그녀가 시어머니따라 절벽으로 뛰어든 이유는?



스님의 환축가게
스제전 지음
이경민 옮김
모비스 펴냄
1만3000원

옛날 한 마을에 행실이 좋지 않은 며느리와 정직하고 바른 시어머니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실을 바로잡아 줘야겠다고 생각해 일이 간섭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당시에는 "천당에 가고 싶으면 절벽에서 뛰어 내리거나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며 며느리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를 절벽으로 끌고 가 밀어 버렸다.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진 시어머니는 절벽 아래쪽 나무위에 떨어져 다행히 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간신히 나무를 붙잡고 절벽을 기어올라가다 강도들이 훔친 장물을 구덩이에 숨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강도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구덩이를 파고 가장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 몇 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보물의 출처가 궁금해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며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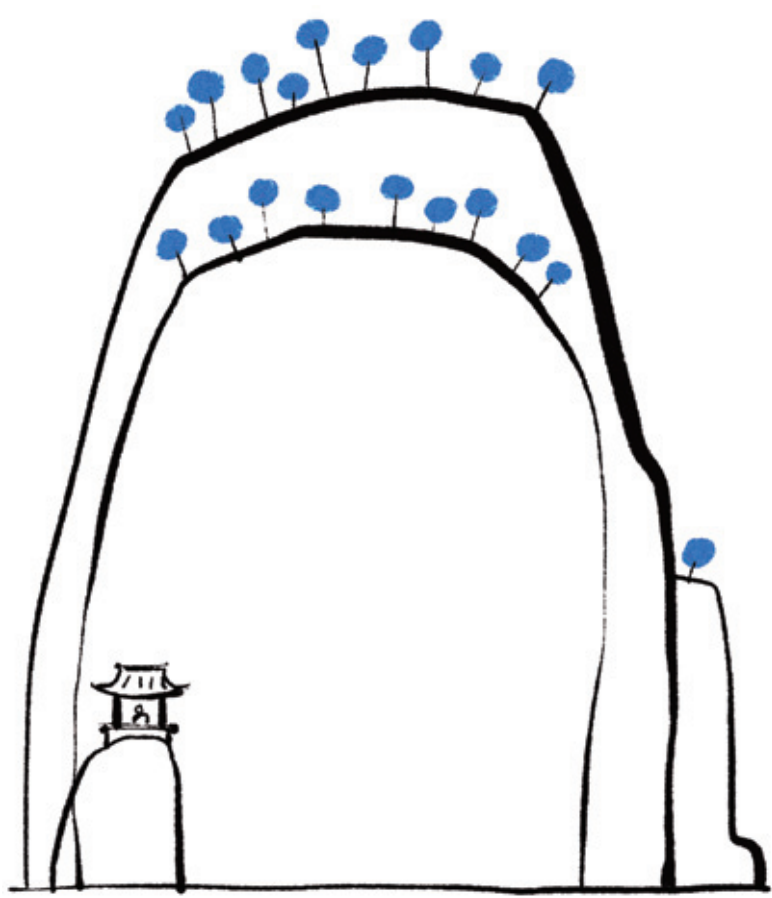
리에게 "천당에 다녀왔잖니 거기는 정말 좋더구나.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나더러 너무 오래 있지 말라면서 자기네들 용돈이라며 이걸 주더라"고 말했다.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 며느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당에 간다는 그 교리가 진짜인가 보구나!'라며 며칠 뒤 용감하게 절벽에서 뿔뿔 뛰어내렸다. - <잡보장경>중에서.

내가 지핀 불 씨 하나가 마구잡이로 타올라 다른 사람을 불태우고 동시에 나 자신도 태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행동의 결과에 따른 상벌이 너무 늦다고 여겨 우리는 인과응보의 힘을 우습게 여기곤 한다.

중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스제전(釋戒顯)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

전 세계에 6억의 독자를 가진 스제전 스님은 <스님의 환축가게>에서 49가지의 경전이야기를 통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불인과 분노로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해준다.

스님은 <육도집경> <백야경> <잡비유경>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전을 인용해 집착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고 유쾌하게 그려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스님이 들려주는 49가지 이야기 속 주인공이 곧 내가 될 수 있다.

스님은 <육도집경>의 '삼촌과 조카의 잊갈린 욕심', <대장엄론경>의 '황금을 찾은 농부' 이야기를 통해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이 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 얼마나 치졸한 생각인지 깨닫게 해준다. 또한 '소중함 나귀 가족' '가장 합리적인 유산 분배' '과일을 따는 법'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놓치며 살고 있는지 돌아 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스님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 손에 든 보석을 알지 못하고, 최고의 것만을 찾아 헤매느라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발자극만 불러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다면 삶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가르쳐 준다.

스제전 스님은 아무 맛도 없는 '환축'을 인생을 살아가는 담백한 지혜로 비유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따뜻한 환축 한 그릇처럼 담백하고 담담한 깨달음을 준다.

1985년 중국에서 출생한 스제전 스님은 어린 나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맡겨져 스님이 됐다.

스님은 중국 마오산에 있는 작은 절 천명사(天鳴寺)에 머물며 불교 경전 이야기, 자신이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 등을 2007년 4월부터 텐아시아라는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 해 7월 텃밭에 '스제전의 환축가게'라는 블로그가 개설됐고 6개월 만에 방문자 수 1300만 회를 기록했다. '환축가게'는 지금까지 방문객 3300만을 넘는 최고의 블로그이다.

이후 스제전 스님은 <스제전의 환축가게>를 3권 까지 내면서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전 세계 6억 이상의 독자를 갖고 있다.

이냐은 기자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

감자전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래왔지만 특히 올해는 잦은 국지성호우로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그다지 싫어하진 않지만, 올해는 '참 해도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다.

특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 때문에 가방 안에 항상 우산을 채비해야 하니 나로서는 그게 더 불만이다. 무거운 가방을 들 때 마다 내 마음도 무거워 지는 것 같다.

특히 큰맘 먹고 떠난 휴가지에서 비라도 오면 정말 낭패다. 스트레스 한 번 날려보려다, 오히려 내리는 비에 뺨맞는 격이다. 아마 올해는 비 때문에 이래저래 눈물 흘린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래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오락가락하는 빗줄기를 인간의 재주로는 어찌해볼 요량이 없으니 최대한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능사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앉아 전이나 부쳐 먹는 것도 즐겁게 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지 않을까.

통속적이긴 해도 비오는 날엔 전이 최고지 않을까 싶다. 때마침 감자도 제철이니 건강도 챙길 겸 감자전을 부쳐 먹으면 어떨까. 보너스로 감자전은 다른 전과 달리 직접 감자를 갈아야 하니,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약속도 없고 비오는 날 집에서 방바닥만 걸고 있는 분들이라면 감자전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알고가기 감자는 다양한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다. 특히 치즈와 함께 먹게 되면 치즈에 함유돼 있는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등과 갈슘, 인 등이 감자와 어울려 영양의 상승효과가 높아진다. 감자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제격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다. 또한 고혈압 환자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감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며, 사과와 함께 두면 썩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감자 1000g, 호박, 풋고추, 전분, 소금, 식용유 (기호에 따라 부추, 실과 등을 넣어도 좋다)

음식 만들기

- ① 감자는 씻어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가라앉힌 후 윗물이 생기면 모두 따라낸다.
- ② 호박, 부추, 실과, 고추 등을 채 썰는다.
- ③ ①에 전분과 ②를 넣고 소금으로 간한다.
- ④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적당히 두르고 한 국자씩 떠서 도톰하게 놓은 다음 노릇노릇해 질때 까지 지져낸다.

이냐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4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5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6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7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8	무비 스님 직지 강설(상)	무비	불광출판사
9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살
10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중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백락사는 頭頭物物이 모두 예술

9월 7일까지 '환경설치미술 초대작가전'

자연 경관과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예술이 되는 환경설치미술전이 고즈넉한 산사에서 열린다.

홍천 백락사(주지 성민)는 8월 27일~9월 7일 백락사 경내·외에서 '2011 백락사환경설치미술 초대작가전'을 개최한다.

강원홍천환경설치미술조직위원회의 기획전시인 이번 행사는 올해 여섯 번째 맞이하는 지역축제이다.

성민 스님은 2006년 '백락사환경설치미술전-일락전'을 시작으로 백락사 경내·외를 중심으로 매년 환경설치미술전을 주회, 기획해 전시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 경관과 하나가 되는 작품을 이용해 환경설치미술의 새로운 장(場)으로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초대작가 23명과 함께 자리를 공유한다.

작품은 페인트와 같은 자연을 해치는 재료나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야외에 설치해 설치 미술의 개념적 승화나 대중적 인식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 8월 27일 오후 5시 30분 백락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이어



조은아의 '길없는 길' (2010 환경설치미술전 초대작)

기념음악회와 천등제 철야 기도가 진행된다.

성민 스님은 "자연경관을 예술적 차원으로 해석 또는 지평을 확대한다는 것에 개념적 중심을 두고 휴식, 여가, 자연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전시 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33) 432-6884

이냐은 기자

배부른 돼지나라, 천(賤)한 나라, 낯빠진 나라, 불쌍하고 불행한 대한민국!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책을 읽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세계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정적 특장(人稱의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 (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을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기나긴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화나 있으면 눈이 벌개 유지하느라고 장 세월에 국력을 쏟아붓는 등 각종 합리화된 모리정지 불이에 국민의 뉘를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아니라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부의 잠재력, 최고의 두뇌력과 최고의 인정력(人情力)을 최대(완벽) 적용하는 학교교육(경교육)실천에 의해

<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행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이와함께 최고의 교육을 위한 병행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 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써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도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겐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라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 문명을 선도(先導)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로 = 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승상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동읍 295-13(호봉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 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 꽃
• 저자 : 慧岩 (俗名 : 吉炳德)
• 규격 : 26cm x 19cm,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현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십시오(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할은 설립이후 (3년 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